

영세 선주 울리는 ‘선불금 먹튀’ 기승

전남지역 조업 성수기 구인난 악용한 선원 취업사기 빈발 무허가 직업소개소 알선비 받고 모르쇠...급여 가로채기도

“5월은 갈치와 병어, 6월은 송어, 7월은 장어 시즌입니다. 어종만 달리해 연중 조업을 해야 하는데, 함께 일할 선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성어(盛魚期)를 맞아 심각한 선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선주들의 어려움을 악용한 선용금(어선에서 일하기로 하고 미리 받는 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선용금 사기 범죄건수는 2016년 30여건, 2017년 50여건, 2018년 100여건 등으로 3년새 3배 넘게 급증했다. 피해액도 2016년 2억 8000여만원 2017년 5억 2000여만원 2018년 10억여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5월 현재 40여 건이 발생해 피해액만 9억여원에 이른다.

선주들은 어선 승선을 약속한 뒤 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선원 탓에 돈을 뜯기는 것은 기본이고 출어일에 선원을 구하지 못해 골탕까지 먹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무허가 중개업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소개비를 받아 챙기고, 선원 구인난에 시달리는 선주에게 선물 구입 등의 명목으로 선불금을 받아 챙겨 가로채기도 했다. 지난 28일에도 영세 선주로부터 선용금만 받아 도주했던 A(43)씨가 해경에 의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선원을 구하지 못한 영세 선주에게 뱃일을 하겠다고 접근, 반년치 임금 1500만원을 미리 받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지난 3월에는 선주와 선원간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급여를 가로챈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B(51)씨를 직업안정법

위반·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B씨는 2014년 1월께 선주(63)에게 선원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그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32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또 지난해 1월까지 4년간 8차례에 걸쳐 선주로 부터 받은 선원들의 선불금 1억 567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린 뒤 소개비와 선용금 등을 가로챈 C(50)씨가 완도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인 C씨는 지난달 2일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외국인 인력을 모집·소개하고, 선주와 선장 등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가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여 동안 외국인 인력을 모집한 뒤, 일손이 필요한 선주와 선장들에게 총 1200차례 정도를 소개해주고 1명 당 2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4800여 만원을 챙겼다.

완도의 한 어민은 “배에서 하는 일은 몸이 고되고 사고를 당할 위험도 많아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주위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선지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종식 완도어선협회장은 “어촌 고령화와 예타 뱃일이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사람 채용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최근엔 외국 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선원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주들이 구인난 등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한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선용금을 줬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그 틈새에서 난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부대 수영장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

광주노동청 부분 작업중지 명령 수영대회 경기장 준공 차질 우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학교 수영장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직후 광주노동청이 해당 공사현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43일 앞으로 다가온 수영대회의 경기장 준공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9일 광주광역시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 수영장 관중석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박모(54)씨가 떨어졌다.

작업반장인 박씨는 20m 높이에 있는 안전작업망을 해제하려 올라갔다 중심을 잃고 관중석 위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박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박씨가 안전고리를 고정하지 않은 채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체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

사하고 있다.

수용 인원이 1000명에 불과한 남부대 국제시립수영장의 관중석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로 건설중인 5000석 규모의 해당 임시 건축물(관중석)은 6월 초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었다.

사고가 난 임시건축물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주요종류 후 8월 15일께 철거될 예정이다.

박씨가 속한 A업체는 안전작업망 전문 시공업체로 광주시와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 왔다.

박씨는 이날 현장 가림막 설치업체의 요청을 받고 안전작업망을 해제하기 위해 혼자 구조물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업은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돼 있으나 이날 동료 작업자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일정과 상관 없이 안전 조치가 충분히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작업 중지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감자캐기 체험 어린이들 “신나요”

29일 광주시 남구 이장동 친환경 농산물체험장의 감자캐기에 참여한 광산구 리리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캔 감자를 자랑스레 들고 보이고 있다.

/나경주 기자mjna@kwangju.co.kr

“이상호씨, 김광석 부인에 5천만원 배상하라”

법원, 명예 훼손 인정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9일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와 고발뉴스, 김광석 형인 김광복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2000만원, 이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씨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화 김광석 상

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영화와 관련해서는 서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씨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과 비방 금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모두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29일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와 고발뉴스, 김광석 형인 김광복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2000만원, 이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광복씨에 대해서는 “이씨처럼 원고가 용의자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까지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중학생 딸 살해 의붓아버지 살인 혐의 기소

검찰이 중학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30대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살인, 사체유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김모(31)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광주시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A양을 불러내 살해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친모 유모(39)씨와 함께 범행한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보복 목적 살인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 우선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남편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유씨에 대해

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 하한이 더 높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분실한 지갑 찾으러 파출소 찾아간 ‘간 큰 수배자’ 탈미



○...지명수배된 20대가 잃어버린 지갑과 휴대폰을 찾기 위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경찰의 신원조회로 그 자리에서 체포.

○...29일 광주농성파출소에 따르면 읍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 400만원을 내지않아 지명수배된 A(28)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파출소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농성파출소를 찾았다가 신원조회에서 지명수배 중인 것이 들어나 곧바로 광주지검으로 인계됐다는 것.

○...경찰은 “A씨가 눈치를 채고 도망갈 것을 우려해 슬그머니 지구대 문을 잠근 뒤 A씨를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신창동 근린상가, 급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

문의. 010-6834-7400